

Guy Laroche

Pictorial

2019-2018

Awesome
Communications

2019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COSMOPOLITAN (KOREA)	SEPTEMBER 2019	240	2019 F/W Collections Look 31



2019 F/W LOOK 31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GRAZIA (KOREA)	SEPTEMBER 2019	95	2019 F/W Collections Look 31



2019 F/W LOOK 31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GRAZIA (KOREA)	SEPTEMBER 2019	96	2019 F/W Collections Look 31



2019 F/W LOOK 31

입 웨이크업 사용 제품과 립스틱
업솔위 부즈 푸니 크림
이 코트 라비
랑콤(Lancôme)
드레스 가이로슈Guy Laroche),
반지 프리오레(Primoire).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WOMAN DONGA (KOREA)	SEPTEMBER 2019	156	2019 F/W Collections Look 10



2019 F/W LOOK 10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WOMAN CHOSUN (KOREA)	SEPTEMBER 2019	151	2019 F/W Collections Look 02



2019 F/W LOOK 02



10
WITH PATCH

천 조각을 하나씩 이어 붙여 완성하는 패치워크 루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스타일링 방법이 필요해졌다. 보헤미안 감성이 가득한 기존 패치워크 디자인부터 빈 곳이 많이 빠지는 과감한 디자인까지 별주가 매우 다양하다.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미니멀한 블랙이나 코트 등 한 가지 아이템만 시도해보는 것. 익숙해지면 두세 가지 아이템을 믹스해 에스닉 룩이나 페인트 룩을 완성해보는 것도 좋다.



11
POWER SHOULDER

생 로랑이 물고 온 파워 숄더의 위력이 대단하다. 일명 어깨 강재로 불리던 오래된 트렌드가 올해에는 더욱 대급해졌다. 이게 꿈에 힘을 낸다. 뺏혔으면 세우는 것은 물론, 아래 부분에 페인트를 기미에 치자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대세다.



12
BLACK CHIC

올 블랙 스타일의 유행은 영원하다. 코트나 슈트 등의 거울 아이템과 특히 잘 어울리는 블랙 컬러는 같은 스타일이라도 소재와 디테일에 따라 느낌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번 시즌에는 특히 미니멀하면서도 쟁여리스 느낌이 사는 시크한 스타일로 연출하는 것이 더욱 인기다.

Month	Page	Objet
September 2019	151	2019 F/W Collections Look 02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Korea Textile News (KOREA)	SEPTEMBER 2018	21	2019 F/W Collections



제3155호 2019년 9월 2일 월요일 21 Collection

2019F/W 기라로슈(Guy Laroche) 컬렉션

블랙과 화이트만으로 충분한 파리지앵의 ‘모던&시크’

대리석 ‘블랙 마블’에서 영감…의상·액세서리 접목 ‘표현력 탁월’

2019F/W 기라로슈 컬렉션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만으로 파리지앵의 모던함과 시크함을 다양한 표정으로 표현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블랙이 주는 중압감을 도듯하고 세련하며 엑서리한 이미지로 풀어냈다.

이번 기라로슈 컬렉션은 매끄러운 대리석인 블랙 마블(Black Marble)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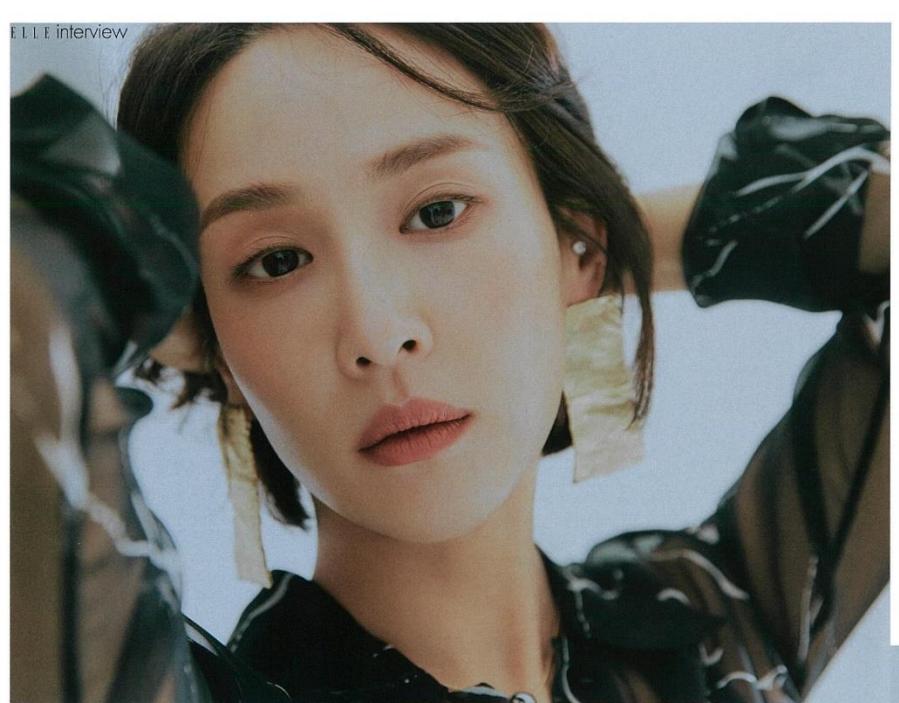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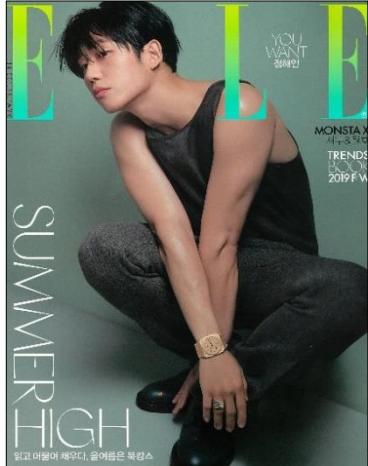
단단한 가죽, 부드러운 저지, 투명한 시폰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블랙과 화이트로 이뤄진 대리석의 패턴을 의상에 옮겨 모던하게 표출했다. 수트와 코트, 원피스, 드레스 등 다양한 의상 뿐만 아니라 핸드백, 부츠, 스트挎, 스키프와 같은 액세서리 역시 블랙 대리석 패턴을 적용했다. 전제적인 의상에 어울리는 포인트 액세서리를 스타일링함으로써 더욱 풍성해진 컬렉션을 펼쳐냈다. 특히 도도하면서도 우아하고 세련된 현대 여성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런웨이였다.

기라로슈는 1961년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기라로슈가 런칭한 프랑스 정통 패션 브랜드다. 기라로슈는 데일리 프리미엄 브랜드 컬렉션을 통해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여성복을 제작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리센시아(대표 김용철)가 기라로슈의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영희 기자 yhlee@ktnews.com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ELLE (KOREA)	AUGUST 2019	154	2019 F/W Collections Look 10



2019 F/W LOOK 10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WOMAN SENSE (KOREA)	AUGUST 2019	198	2019 F/W Collections Look 10



2019 F/W LOOK 10



2018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QUEEN (KOREA)	DECEMBER 2018	25	2018 F/W Collections Look 15



2018 F/W LOOK 15

패션 리포트

마그체이콥스
MAGCHIECOV'S

올 겨울엔 오버사이즈와 복고

오버사이즈와 복고풍의 열기가 계속 될 전망이다. 겨울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면 옷장 속에 넣어두었던 오버사이즈의 이너티와 복고풍의 옷을 꺼내보자. 부모님의 옷장을 뒤져보는 것도 추천한다. 숨겨진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진행 유희미 기자 | 사진 각 브랜드 제공

자체브랜드
SELF-BRAND

로이비
ROYALBE

로리보
LORIBAU

추운 겨울 오버사이즈의 옷이 유행이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한다고 해도 걱정을 덜 수 있다. 봄보다 훨씬 큰 이너티 속에 여려 겉의 옷을 걸쳐 입을 수 있으니 말이다. 마크제이콥스의 컬렉션을 먼저 살펴보자. 아버지 코트 같은 패의 코트와 와이드 팬츠를 매치했다. 짹 끼는 스커티 팬츠의 유행이 가고, 통 넓은 와이드 팬츠의 인기가 연일 상승하고 있으니 스타일링 시 참고하도록 하자. 로에베는 한 눈에 보아도 따스해 보이는 무스탕 코트를 선보였다. 보송보송한 텔 장식 또한 보온성을 염시켜준다. 또 다른 둑에서는 소매의 길이가 팔등을 다 덮는 와이셔츠를 배치했는데, 중성적인 매력이 돋보인다. 기라로쉬는 품이 큰 브이넥 상의를 선보였다. 오버사이즈지만 여성스러운 디테일과 혀리선을 강조해 섹시한 느낌을 자아낸다.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Korea Textile News (KOREA)	DECEMBER 2018	21	2019 S/S Collections



제3123호 **한국섬유신문**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21 Collection**

2019 S/S Guy Laroche Collection

‘기라로쉬’ 80년대 자유정신 ‘시크하고 대담하게!’ 표현

리차드 르네, 최소한의 디자인이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무드

프랑스 패션 브랜드 기라로쉬(Guy Laroche)가 1980년대의 자유로운 정신과 괴감함, 대담성을 담은 2019 S/S 컬렉션을 선보였다.

1980년대 프랑스 패션의 어느 클럽, 빛과 그림자, 급진적이고 기하학적인 퍼민 등에서 영감을 받은 이 번 컬렉션은 하이트와 블랙을 중심으로 블루, 오렌지, 옐로우를 포인트 컬러로 조화롭게 사용했다. 최소한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컬러나 패턴을 접목, 블루에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디테일을 넣었으며 전체적으로 시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내뿜고 있다.

기라로쉬의 2019 S/S 컬렉션은 아트 디렉터 리차드 르네 의 파격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성향을 그대로 나ぞ았으며 틈에 박혀 있거나 않은 디자이너의 독자적인 창의성으로 완성했다. 600년의 브랜드 역사를 배경으로 미래지향적 트렌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매력지수를 급상승시킨 이번 컬렉션은 아인 티티와 정통성에서 우러난 저력을 실감하게 한다.

기라로쉬(Guy Laroche)는 1961년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기라로쉬(Guy Laroche)가 연창한 프랑스 전통 패션 브랜드다. 기라로쉬는 매년 프레타 푸르 페(ready-to-wear) 컬렉션을 통해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여성복을 제작하며 프랑스 명품 브랜드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리센시아 에이전시(대표 김용철)가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희 기자 yhee@ktnews.com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WEDDING21 (KOREA)	NOVEMBER 2018	170	2018 F/W Collections Look 29



2018 F/W LOOK 29

STYLING TIPS

CHIC VS CUTE

스타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플리츠스커트. 길이와 소재가 다양한 만큼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매치해보자.
가죽 소재와 블랙컬러 위주의 시크룩 그리고 니트와 어울리는 컬러풀한 느낌의 귀여운 캐주얼룩 제안.
에디터 김은비



1



2



3



4



5



6

CHIC



기획: 김은비 F/W 2018.2019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WOMAN CHOSUN (KOREA)	OCTOBER 2018	133	2018 F/W Collections Look 14



2018 F/W LOOK 14

The advertisement features three perfume bottles from the Guy Laroche collection:

- Gold Line**: A clear glass bottle with a gold cap.
- White Line**: A clear glass bottle with a white cap.
- Black Line**: A clear glass bottle with a black cap.

Text below the bottles includes:
 - Gold Line: 100ml, 50ml, 30ml
 - White Line: 100ml, 50ml, 30ml
 - Black Line: 100ml, 50ml, 30ml
 - Price: 100ml 35,000 won, 50ml 25,000 won, 30ml 18,000 won
 - Description: A fragrance that represents the life of a woman who loves life and loves herself.

At the bottom right, it says: "The fragrance of a woman who loves life and loves herself."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WOMAN CHOSUN (KOREA)	OCTOBER 2018	132	2018 F/W Collections Look 14



2018 F/W LOOK 14



올해 유난히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자냈나요? 지금 들어가는 작품도 3개예요. 연말까지는 이런 스케줄로 지낼 것 같아요.(웃음)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지 살았는데 사람은 무엇이든 적응하고 산다잖아요. 잘 조율해서 꾸려가고 있어요. 작업 자체가 워낙 평일 주말 구분이 없잖아요. 연휴도 없고요.

기상 캐스터 출신으로 데뷔 특이합니다. 어제 계기로 연기자와 함께 들어셨나요? '배우를 해야겠다고 딱 결심이 설 만한 계기는 없었어요. MBC 기상 캐스터로 일할 때 우연히 드라마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카페오 제의가 있었고, 최소한 창피하지는 않게 연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연기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앞으로도 연기를 해보는 게 어렵겠느냐고 권유하셔서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에 들어섰죠. 사실 10년 전만 해도 영역 구분이 확실해서 가수가 연기하거나 기상 캐스터가 연기자로 전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처음에 연기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 시선이 그렇게 끔지 않았어요. “재 되게 뜨고 싶은가 봐”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문화가 많이 변했고 방송사도 많이 생겼잖아요. 가수나 아나운서가 연기를 해 더 이상 특이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MBC 『미스터 선샤인』의 강호선 역은 의외예요. 부잣집 안방마님(이지만

애처로운 캐릭터라 연기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어요. 명예로운 집 안의 미느리도 아니고, 남편 집안의 잘못 때문에 결국 이기는 아들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돼 안타까워하는 인물이죠. 처음에 이 역할을 제의 받았을 때 조선에서 갈나가는 집안의 미느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친일 캐릭터이나만큼 ‘정말 나쁘게

표현해야 하나’ 생각해봤는데, ‘강호선이라는 여자가 저지른 악행은 없었죠.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이런 시대 배경과 개인의 감정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연기력뿐 아니라 화려한 한복을 완벽히 소화하는 단아한 외모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에요. 강호선은 피부가 하얘야 한다고 생각해 미백에 집중해서 관리했어요. 화이트닝에 좋다는 뷰티 아이템도 다양하게 구비해두고 꾸준히 사용했고, 피부와 관리 횟수도 조금 더 늘렸고요. 헤어스타일도 잔머리 하나 없이 꼼꼼히 빗어 묶고 등장하기 때문에 얼굴 라인 또한 신경 안 쓸 수 없더라고요.(웃음)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QUEEN (KOREA)	OCTOBER 2018	27	2018 F/W Collections Look 14



2018 F/W LOOK 14

포리버니[
기라로 외]

기라로 외

기라로 외

#Trench_Coat

겨울 추위 속에서 영국 군인과 연합군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트렌치코트는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베이직한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매년 가을이 되면 거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클래식한 매력의 트렌치코트. 명화 <애수>에서 로버트 테일러가 트렌치코트를 입고 미비안 리와 워털루 브릿지 앞에서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명장면. 이렇듯 가을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아이템, 트렌치코트가 이번 컬렉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가장 큰 특징은 소재와 패턴, 디자인의 다양성이다. 토리버치는 독특한 소재의 트렌치코트를 내놓아 이목을 끌었다. 기라로 외는 이번 시즌 가장 주목 받는 페틴인 레오파트 트렌치코트와 헤리선을 강조한 여성스러운 실루엣의 트렌치코트도 함께 선보였다. 로에베는 고전적인 컬러를 선택한 대신 독특한 주머니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소니아 리키엘은 디플 버튼 제작과 함께 겹쳐 입을 수 있는 트렌치코트를 내놓아 가을 분위기를 한껏 표현했다.

트리베
소니아 리키엘

트리베
소니아 리키엘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TOBRIDE (KOREA)	OCTOBER 2018	116	2018 F/W Collections Look 14



2018 F/W LOOK 14

Fashion

to BRIDE

Woman with a Special Pattern

Guy Laroche,
지브라 패턴 롱 재킷
세련된 지브라 패턴 롱 재킷
이다. 블랙&화이트 컬러로 세
걸친 무드를 연출할 때 안성
맞춤이다. 하리 실루엣을 잡아
줄 벨트 디테일이 있어 보디
리인을 더욱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으며, 허리힐 부츠와도
잇는롭게 어울린다.

가을 패션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어 줄 '패턴' 아이템을 만나보자.
EDITOR 박진아

116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TOBRIDE (KOREA)	OCTOBER 2018	117	2018 F/W Collections Look 32



2018 F/W LOOK 32



**Guy Laroche,
스트라이프 패턴 재킷**

흔히 칠은 마스트드 컬러 재킷으로 가을 노길을 살폈다. 밝은 노길을 연출하고 싶을 때 특히 잘 어울리며 무게 있는 무릎신의 기장감이 활용도를 비가 높였다. 클래식한 펜스 웨이스트리본도 연출 가능하다.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AVENUEL (KOREA)	SEPTEMBER 2018	186,187	2018 F/W Collections Look 14



2018 F/W LOOK 14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QUEEN (KOREA)	SEPTEMBER 2018	42	2018 F/W Collections Look 2



2018 F/W LOOK 2

패션 리포트

스웨터
마크제이콥스

트리니티
토리버치

토리버치
가리로우

September Scarf

트리니티

토리버치

스카프는 9월, 환절기에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다. 목에 두르거나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머리에 쓸 수도 있어 실용성과 활용성을 두루두루 갖췄기 때문에, 토리버치의 스타일링처럼 깊게 과인 상의를 입을 때 가볍게 둘러주어도 스타일리시한 선택이다. 마크제이콥스는 독특한 스카프 인출법을 내놓았다. 뛰는 방법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무드를 선사하기도 한다. 기리로우처럼 의상과 스카프 색상을 통일시키면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때로는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는데, 토리버치는 심플한 원피스에 풍 스카프를 매치해 내추럴한 무드를 연출했다. 로에베는 환절기 스카프 스타일링의 정식을 보여주었다. 아직은 딥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스카프를 어깨에 걸쳐 보온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진행 유혜리 기자 | 사진 각 브랜드 제공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QUEEN (KOREA)	SEPTEMBER 2018	43	2018 F/W Collections Look 24



2018 F/W LOOK 24

September Outer

기라로우 토리버치

September Outer

토리버치

September Outer

토리버치

September Outer

토리버치

9월은 장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우터를 하나씩 꺼내놓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을의 특권, 아우터 연출법을 퀸웨이에서 배워보자. 가을 아우터의 대표주자적인 가디건, 토리버치처럼 화려한 패턴의 원피스에 심플한 카디igan을 매치하면 청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트렌치 코트 또한 가을 아우터 목록에서 빠놓아선 안 될 리스트. 천연일률적인 트렌치코트가 지겹게 느껴진다면 로에베처럼 변형된 디자인을 시도해보자. 막토 형식의 트렌치코트가 클래식하면서도 시크하다. 여러 아우터를 레이어링 하는 것도 좋은 선택. 그러나 약간의 기술의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부해 보이거나 과해보일 수 있기 때문. 레오나르도처럼 이니는 심플한 디자인을 매치해 아우터에만 포인트를 주는 것도 칭찬할 만한 기술이다. 사르르 떨어지는 재킷도 빠트릴 수 없다. 'simple is the best'라는 패션 공식을 증명했다.

진행 유화미 기자 | 사진 각 브랜드 제공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ARENA (KOREA)	AUGUST 2018	173	2018 F/W Collections Look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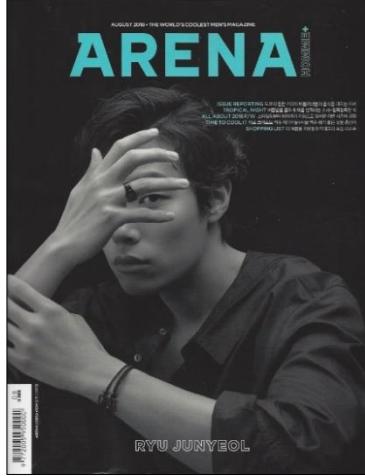
2018 F/W LOOK 29



2018 AUGUST

173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ARENA (KOREA)	AUGUST 2018	172	2018 F/W Collections Look 29



Interview

기회였어요.
보는 입장에선 조금 아쉬웠어요. 노랫말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맞아요. 자우림 음악을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 점을 굉장히 속상해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로 충분하고 생각했어요. 노랫말이 전해지지 않는 게 만으로도요. 솔직히 말하면요, 같은 언어를 써도,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듣는 청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짐작해 있게 음악을 들으시던 분들은 물들고 싶어기도 했어요.
신기하죠.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자우림과 김윤아의 앨범을 계속 들었어요. 김윤아는 파도처럼 밀려왔고, 자우림과 김윤아의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은 불씨를 전자요. 그냥 고여 있도록 두지 않고, 바닥까지 다 훑어 만들어요. 아티스트로서 김윤아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도 그런거예요.
반대예요. 제 감정을 남편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죠. 그 사람을 대면하여 할 수 없는 이야기. '너 이 자식 죽어버려' 같은 말들을 노래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그런 식이에요. 사람을 다 뒤집어놓는 음악이죠. 깨미였다고 생각했던 옛날 일을 들쑤시고요. 음악은 결국 하는 사람의 위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우림의 모든 음악을 관통하는 정서는 무엇일까요?
음, 무기력한 것 같아요. 결과를 알지만 나 표기하고 놓을 수 없는 무기력한, 안 될 걸 안 순간 다 먼저버리고 어. 몰라. 난 몇 끝이야'하면서 놓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반복동작도 어쩔 수 없음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건 그냥 가정 사실이에요. 나는 무력한 존재인데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가야 하는 것에서 오는 무기력함이죠. 자우림 1기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일발'이요. 굉장히 도발적인 곡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군요. 사실 그런 행동은 절대 못할 거이라는 전제로 하는 얘기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일발'도 무기력한 노래예요.

그런처럼 상상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상상만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하. 그래 보고 싶다는 상상만 하는 거죠.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질문과도 봄은 부분이에요. 평소 나의 방식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것인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노래로 다 하자.

자우림의 음악에는 또 수많은 물음이 있어요. 삶에 관한 의문, 세상에 관한 물음이 빼곡하죠.

우리나 모두 뭔가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공동적으로, 어떤 뉴스는 사실과 다를 수 있죠. 저희는 뉴스를 보면 뭐가 사실입니까?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고. 사람 사이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도 더 친구처럼요. 보이는 게 다일까요? 생각하죠.

그래서 고정적인 소재로 삼아왔어요.
와심하지 않고 믿어버렸던 것은 없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믿거나 너ван적인 눈으로 보는 태입은 아니었는데 살면 살수록 절점. 더욱 더 믿을 견 하느노 일구어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하.

확신으로 변했군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을 만드는 게, 자신의 인생을 굳건하게 만드는 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우림의 음악에 워로벌까요. 어떻게

자우림은 그 많은 워로를 하게 되었을까요?
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멋진 믿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담을 제시하거나 감동을 삼엄한 느낌은 우리 노래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때문이 아닐까요? 답은 찾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걸까요? 그런 수도 있었네요.



2018 F/W LOOK 29



172



ARENAHOMME*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WEDDING 21 (KOREA)	AUGUST 2018	234	2018 F/W Collections Look 9



FASHION TREND

체크는 진리

‘가을 하면 체크, 체크 하면 가을’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을 패션의 대명사인 체크 패턴은 올해도 어김없이 성행할 예정이다. 단, 올해는 늘 빠웠던 자가운 체크가 아니라 다양한 변신을 꾀한 새로운 체크를 만날 수 있을 것. 펜디는 PVC 소재의 체크 코트를 선보였다. 독특한 소재와 만난 체크 패턴은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다가온다. 디올은 다른 소재, 다른 체크의 투포스를 결합해 시크한 믹스매치룩을 제시했다. 이밖에 정장, 스커트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된 체크 패턴 스티일링을 참고해, 매일매일 새로운 체크를 시도해보자.

여름의 끝?

여름 해가 줄어들고 하늘이 높아지고 있다. 가을이 다가온다는 증거.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2018 F/W 컬렉션을 통한 트렌드 ‘미리 보기’로 풍성한 가을 옷장을 준비하자.

에디터 한혜리

2018 F/W LOOK 9

2018 F/W 시즌 컬렉션에는 유독 캐이프 스타일이 자주 등장했다. 소매 없는 망토식 겉옷인 캐이프는 주로 ‘구여운’ 스타일을 연출할 때 사용되는 아이템이었지만, 2018년의 캐이프는 누구보다 우아한 커리어무언으로 만들어주는 아이템으로 변신했다. 그 방증으로 기아로쉬의 캐이프 스타일들은 거리 어우연의 커리스마를 떠오르게 한다. 펜디 역시, 퍼 소재 캐이프로 앤데팡스한 매력을 선보였다. 반면 디올의 캐이프 코트는 표면에 보이는 소재와 따뜻한 컬러 감으로 캐이프가 갖고 있던 기분의 귀여운 매력을 한층 우아하게 소화해냈다.

234 wedding21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WEDDING 21 (KOREA)	AUGUST 2018	235	2018 F/W Collections Look 25



© 이지밸리

죽지 않는 오버사이즈

그 옛날 그 시절 부모님이 즐겨 입던 오버사이즈는 복고 열풍으로 지금의 '내'가 즐겨 입는 '마스트 헤브 아이템'이 됐다. 다시 돌아온 오버사이즈 스트일 아니. 어쩌면 우리 걸에 늘 존재하고 있었던 오버사이즈 스트일은 패션계에서 사라지지 않을 절대적인 존재로까지 보인다. 가을, 겨울이면 수많은 오버사이즈 코트가 등장한다. 2018년도에도 어김없다. 에르메스는 고급 원단으로 제작한 오버사이즈 코트를 선보였다. 가을을 대표하는 개털 색상 코트로, 데일리 아이템으로도 손색없다. 오버사이즈 얼굴은 비단 코트에만 적응된 것은 아니다. 이제 베이비마리昂은 오버사이즈 재킷을 활용한 세련된 스트리밍몰을, 루이비통은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원피스로 빼미난한 매력을 선보였다.

© 에르메스 by Wallin Tise

F/W 전초전!

© 이지밸리

© 이지밸리

© 프라다

레트로 VS 퓨처리즘

올해 가을, 겨울 시즌에는 상반된 매력의 스타일들이 대거 등장했다. 몇 년 전부터 패션계의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된 '레트로' 스타일과 미래지향적 '퓨처리즘' 스타일이 그 주인공. 이르메스는 레트로 계의 마스트 헤브 아이템인 원색 플리티와 앤버튼 새깃으로 정장을 복고를 재현했다. 빤디 역시 펜슬 스커트와 클래식 스타일의 칼라가 돋보이는 정장스타일로 옛날 유니폼을 연상케 하는 '레트로' 스타일을 선보였다. 반면 프라다는 내면 컬러의 독특한 퍼소재로 퓨처리즘의 정점을 보여줬다. 기라로쉬는 네이비 컬러 원피스에 세겨진 기생학적인 굽드빛 패턴으로 드라마틱한 '퓨처리즘' 륙을 완성했다.

© 이지밸리



2018 F/W LOOK 25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WEDDING 21 (KOREA)	AUGUST 2018	236	2018 F/W Collections Look 22



2018 F/W LOOK 22

깔맞춤? 혹은 톤온톤!

이번 F/W 시즌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컬러의 화면이 등장하였다. 원색과 모노톤을 넘나드는 다양한 컬러의 등장은 물론이고, 조합까지 다채롭다. 그중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건 원톤 컬러로 스타일링을 완성한 '톤온톤' 스타일. 소위 '깔맞춤'이라고도 불리는 원톤 컬러는 단순한 코디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거의 모든 브랜드의 컬렉션이 선보일 정도로 원톤 컬러의 '톤온톤' 스타일은 '나에게' 스타일링이 확실하다.

눈에 띠는 엘로

긍정적인 느낌을 전시하는 컬러, 혹은 사람 눈에 가장 잘 뜨는 컬러 엘로. 2018년 F/W 컬렉션에서도 역시 엘로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중 보테가베네티는 원색에 가까운 엘로 컬러를 통해, 실크 스퍼드일, 정장 스퍼드일 등 다양한 둑을 제작했다. 실크 소재와 민난 엘로 컬러는 걸드를 연상시키기도 해 고급스러운 매력을 표출했다. 또한 에르메스는 레더 워피스 주름 사이사이에 보이는 엘로 패턴과 백, 슈즈 등의 아이템으로 인상적인 포인트를 남겼다.

236 wedding21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WEDDING 21 (KOREA)	AUGUST 2018	237	2018 F/W Collections Look 14



© 웨딩21

추워도 과감하게, 시스루

바람이 불고 쌀쌀한 가을과 겨울이 와도, 패션계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다수의 패션에 등장한 시스루룩이 그 증거다. 생로랑은 시스루 이너로 은은한 매력을 표출 했다. 블랙 컬러의 패턴 자수가 새겨진 시스루는 날씬한 몸, 인보일 듯한 신비로운 빛을 연출했다. 생로랑처럼 은은하게 시스루의 매력을 표출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 디올과 보테가베네티는 과감한 전신 시스루룩으로 날씨에 굽bow하지 않는 패션의 열정을 보여준다. 화려한 컬러와 아우라진 시스루룩은 과감함을 넘어 당당함까지 엿보인다.

© 웨딩21

추억의 명화처럼, 웨스턴 스타일

옛날을 추억하는 레트로 스타일의 베이비를 조금 더 즐기면 분명 한 웨스턴 스타일이 존재한다. 70년대 미국 서부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웨스턴 스타일은 2018년 F/W 시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에르메스는 카우보이의 상장인 가죽 부츠를 시작해, 가죽 펜초, 간장을 연상케 하는 자수 상의까지 양복한 웨스턴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특히 이자벨미팅은 이번 F/W 시즌 컬렉션의 주제로 '웨스턴' 스타일을 선보이며, 술 창식이 달린 각종 재킷과 다양한 컬러의 가죽 부츠 등을 대거 등장시켰다. 올 가을과 겨울, 새로운 스타일링에 도전하고 싶다면 2018 F/W 시즌 컬렉션의 웨스턴 스타일을 참고해보자.

© 웨딩21

미치도록 화려한 패턴

눈을 현혹하는 미야는 '패턴'인 한 게 없다. 현란하게 놀 어진 2018 F/W 패션계의 패턴은 시선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현혹한다. 에르메스는 고급스러운 에이슬러리 패턴을 제시했다. 원색과 모노톤이 아우라진 규칙적인 패턴에서는 에르메스만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 이번 시즌 시선은 누구보다 다양한 패턴 스타일링을 제시했다. 불규칙과 규칙 사이를 냉다듬며, 시선을 서로잡는 새로운 룩을 다수 선보인 것. 미우미우는 문자 패턴을 통해 재치를, 기괴로しさ는 지브라 패턴을 통해 세련됨을 내비쳤다.

© 웨딩21

2018 F/W LOOK 14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QUEEN (KOREA)	AUGUST 2018	111	2018 F/W Collections Look 3,9



2018 S/S LOOK 3,9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THE NEIGHBOR (KOREA)	JULY 2018	56	2018 S/S Collections Look 12



2018 S/S LOOK 12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WEDDING 21 (KOREA)	JULY 2018	29	2018 S/S Collections Look 15



2018 S/S LOOK 15

COMFORT & TRENDY

2018 S/S 시즌에는 블랙&화이트, 야생화 패턴을 비롯한 화려한 패턴이 강세다. 원피스 수영복 종류도 심플한 라인부터 화려한 패턴까지 다양하게 출시되어 한 가지만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 원피스 수영복은 딥팅하다고? 그렇다면 어깨나 등이 시원하게 드러난 디자인을 선택하자. 원피스 수영복의 편안함을 맛본 후에는 다시는 비키니를 입고 싶지 않을지도. 트렌드가 신경 쓰이는 당신에게 필요한 원피스 수영복들. 에디터 김은희

SWIM WEAR

로맨틱한 허티
아일렛 기본형
스윔웨어,
엔아더스토리
8만9000원

깊은 V라인이 세골을 강조하는 심플한
블랙辱라 원피스,
자라 4만9000원

화려한 배색과
오브솔더가
개성적인 스윔웨어,
엔아더스토리
8만9000원

울타리 리본이 섹시한 그린
원피스, 벌브레판 3만원

가슴골이 끈으로
섹시한 연걸이
기능한 블랙 원피스,
에탈 7만2000원

여성스러움이 가득한
리플형 오프숄더 스윔웨어,
에탈 8만2000원

커다란 꽃무늬가 눈길을 끄는
기본형 스윔웨어,
베탈 7만4000원

X자로 이어지는
길고한 레드 스윔웨어,
에탈 7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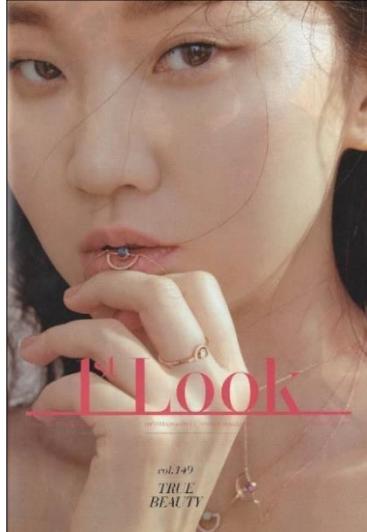
©GUY LAROCHE 2018 SS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NYLON (KOREA)	MARCH 2018	102	2017 F/W Collections Look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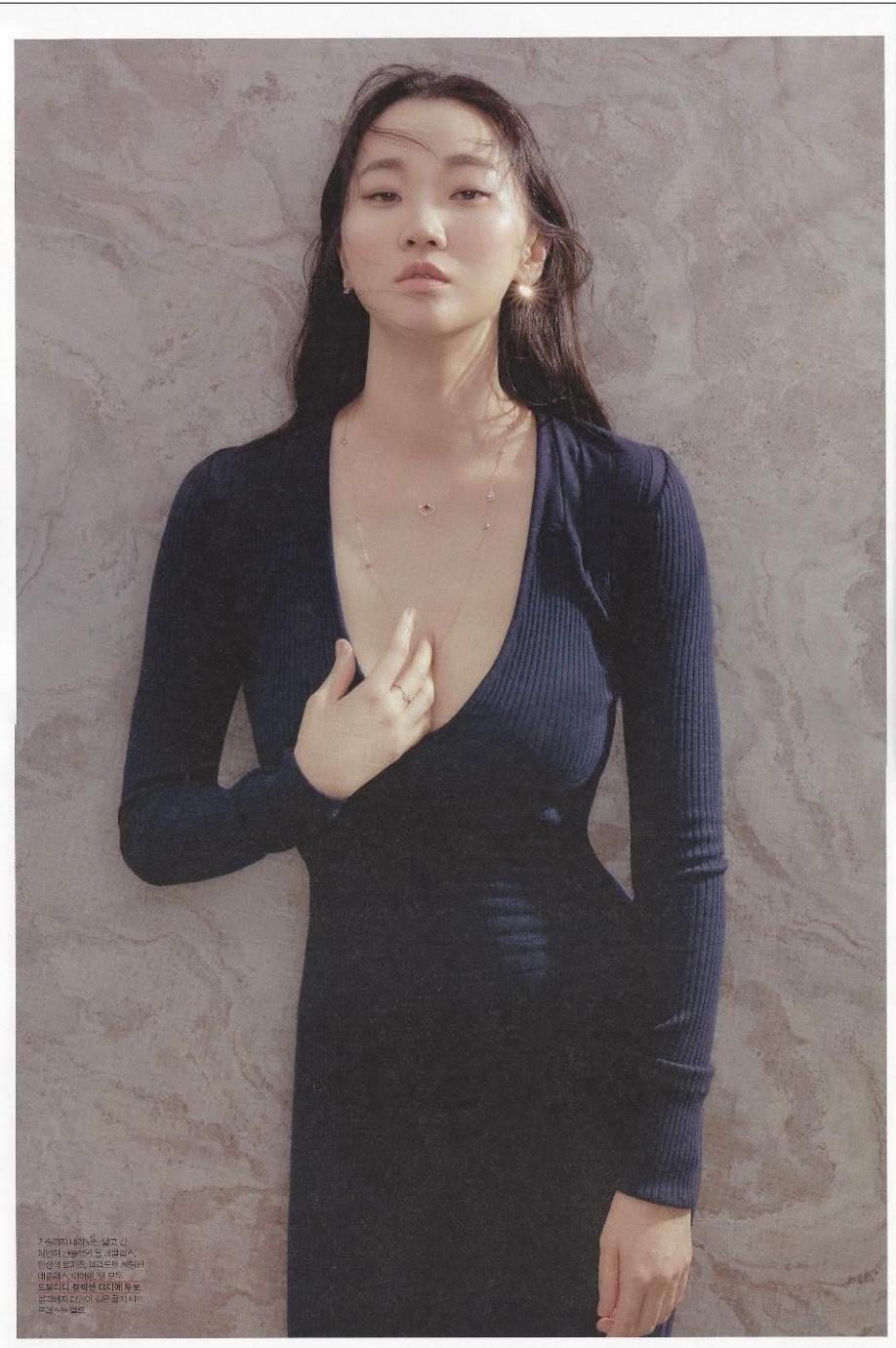


2017 F/W LOOK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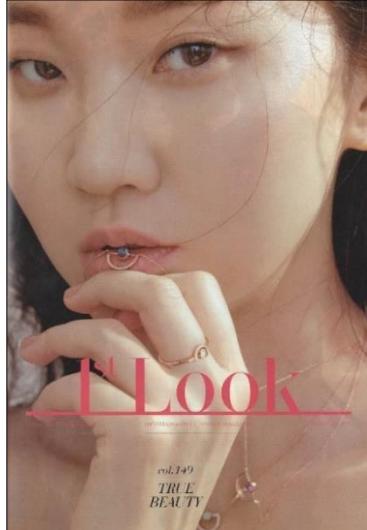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FIRSTLOOK (KOREA)	MARCH 2018	17	2017 F/W Collections Look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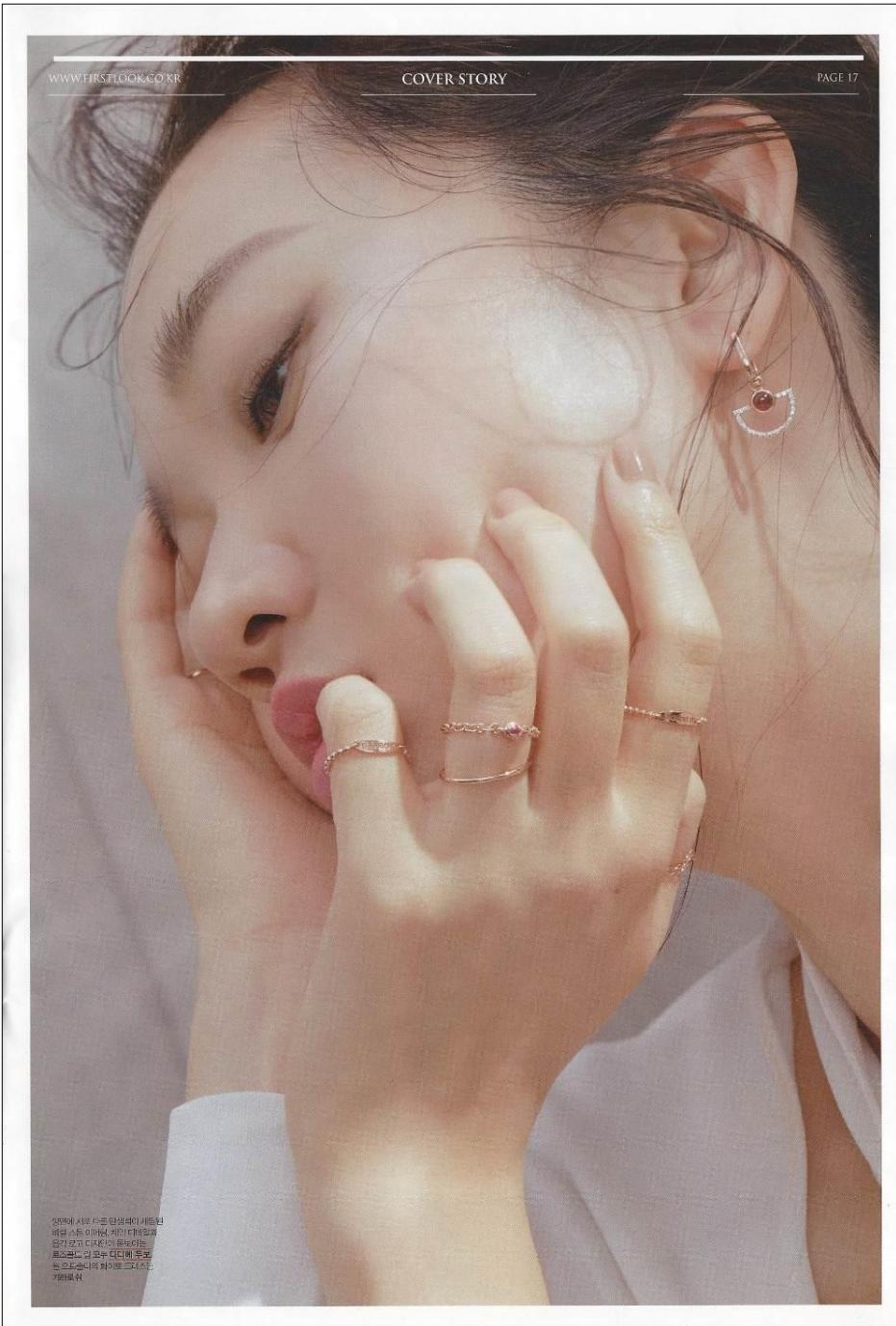
2017 F/W LOOK 9



JOURNAL MAGAZINE	MONTH	PAGE	OBJET
FIRSTLOOK (KOREA)	MARCH 2018	16	2018 S/S Collections Look 13



2018 S/S LOOK 13



The End of Document